

레미콘 부족난 '지속'... 겨울철 맞아 '철근도 부족'

전주시내 건설현장 '이중고'

대리점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사들 타격 커

건설공사 비수기인 겨울철 동절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철근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건설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철도파업발 시멘트 제한 출하에 묶인 레미콘 부족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근 조달난까지 가중되면서 건설현장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주시내 건축현장의 한 소장은 "철도파업 이후 레미콘이 하루 일정량 미만으로 묶여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에서 철근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며 "회기말인 이달 중에 어떻게든 속도를 높여 기성고를 확보해야 하는데, 본사에 호소해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레미콘과 철근 조달의 동시 차질로 건설현장마다 대책 마련 요청이 쇄도하면서 건설업체의 자재구매 부서도 비상이다.

특히 건설현장 단위로 제강사와 필요한 철근을 탄기방식으로 일괄구매하는 대형사들과 달리 대리점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사들이 입고 있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중경사의 한 자재구매 담당자는 "하루는 레미콘이, 다음날은 철근이 모자라서 골조공사가 진도를 못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많이 쓰이는 10mm 제품은 웃돈을 쥐고 구만 해도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당 50만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었던 철근은 최근 56만원까지 올랐다."

가격도 치솟고 있다. 10월과 11월 초만 해도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당 50만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었던 철근은 최근 56만원까지 올랐다.

당 40만원대였던 중국산 철근도 같은 기간에 52만~53만원까지 급등했다. 10mm 규격은 54만원 이상을 쥐고 구하기 어려워 시세가 무의미해졌다.

건설사의 구매 담당자는 "동절기를 목전에 둔 12월의 철근 품귀와 가격 급등은 이례적이다. 착공량이 급증한 점은 수급이 안정적이었던 10월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조유통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철근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 아래 대리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고 수입업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입산 철근은 통상적으로 주문 후 국내에 들어오려면 2개월 가량이 걸린다. 지난 10월 일부 제강사의 텀핑으로 국내 철근이 남아돌면서 수입 주문량을 줄였다.

반면 가격이 초강세인 현 시점에서는 주문해봤자,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2월 비수기에 국내에 들어온다. 수익성을 감안해야 하는 수입업체로선 유인이 적어진 셈이다.

게다가 최근 국회의 철근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입법 등 수입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거세진 데 따른 경계심과 반감도 한몫했다. 수입

산 철근이 급감하면 국내 철근시장이 어떻게 될 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보여줄 기회일 수 있다는 게 수입업체의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강사들의 생산량 조절 의혹도 제기한다. 건설업체와의 4분기 철근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하는데다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조달청과의 내년도 관수철근 공급계약도 오는 22일로 미뤄지면서 철근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추측이다.

철근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마다 올해 매출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성 앞당기기 노력에 집중하면서 철근 수급이 더 나빠진 것 같다. 그러나 1월도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리고 2개월 가량 지연된 건설·제강업체 간 4분기 철근가격이 매듭지어져야 전반적인 시장이 정상체도로 돌아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안재용 기자

어린 잎 채소,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체계 확립

농진청, 미래원과 공동연구 셀러드·비빔밥용 채소로 이용

품질관리 체계는 일반기준 수확-예냉-포장-출하 단계

농촌진흥청은 (주)미래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어린잎채소의 '수확 후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 보급에 나선다.

어린잎채소는 잎이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수확하는 10cm 이내의 잎채소로 셀러드, 비빔밥 및 나물용 채소로 이용이 높고 있다.

조직이 연한 잎을 수확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어렵고 미생물 증식이 빨라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에서 확립한 수확 후 품질관리 체계는 일반 농산물의 경우, 수확→예냉→포장→출하 단계이며 신선편이 농산물은 예냉 뒤 세척→탈수 단계가 추가된다.

어린잎채소의 수확은 잎 길이가 10cm 이하일 때 수확하고 수확할 때 사용하는 칼은 토양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수확 후에는 5℃ 이하로 유지되는 예

냉실로 이동해 선도저하를 방지한다.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0.02~0.03mm 두께의 PE(폴리에틸렌) 필름에 어린잎 채소를 담은 후 품온을 낮춘다.

신선편이 농산물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3단계 세척(1차: 이물질 제거/비빔, 2차: 60ppm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침지, 3차: 헹굼/침지)을 각 2분~5분 실시하며 회전식탈수를 950rpm, 30초~70초 실시한다.

일반 농산물 포장을 위한 작업장 온도는 15℃~18℃,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작업장 온도는 10℃ 이하로 관리하며 완제품을 출하할 때는 저온유통을 실시한다.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적용한 어린잎 채소의 품질유지기간은 저온(5℃) 유통 기준 9일에서 11일까지 늘릴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확부터 유통에 이르는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을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기술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최지원 농업연구사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 시스템을 포괄한 수확 후 관리 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어린잎채소가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우체국 사랑의 김장나눔

전주우체국 집배원 365봉사단은 지난 3일 완산구 일대 에너지 저소득층 및 불우이웃 11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과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전주우체국 강종천 국장과 택배 배달을 마친 130명의 집배원 365봉사단, 연탄은행 관계자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해 지역주민에게 사랑과 온정을 전했다.

/안재용 기자

11월 도내 주식거래량 증가

11월 전북지역 투자자의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11월 전북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도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을 합친 주식거래량은 2억 2,202만주로 전월(2억2,072만주)에 비해 220만주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식거래대금 역시 전월(1조2,156억원)에 비해 300억원 증가한 1조2,456억원을 기록했다.

/안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금융감독원 전북은행 실제 금융거래 체험 재무설계 기초 설명도



금융감독원 전주지원과 전북은행은 지난 2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주부 300여명을 초청해 금융교육 및 금융활동을 체험하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과 전북은행은 최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주부 30여명을 초청해 금융교육 및 금융활동을 체험하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거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 주부들에게 금융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주부들은 전북은행 영업부 창구에서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해외송금 등 실제 금융거래를 체험했으며, 금융감독원 전문가로부터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과 재무설계 기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전북은행은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환전,

해외 송금시 우대혜택을 제공해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석자들은 실생활에 꼭 맞는 금융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장은 "우리 금융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주부들이 불법 사금융

과 같은 잘못된 금융거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돈을 모으거나 빌리는 금융 활동은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금융 지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습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농협 '도담도담통장' 판매 보름만에 1조원 돌파

농협상호금융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출시한 '도담도담통장'이 판매 15일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도담도담통장'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상품으로 임신부, 어린이 등 개인고객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동참하는 법인에게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해 출시 때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인기 캐릭터가 담긴 통장과 스티커를 제공해 어린이들의 저축습관을 기르고, 영유아를 위한 학습 포털 앱(App)과 어린이 상해보험 등 출산·육아에 실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인기가 높았다.

이대훈 대표이사는 판매 1조원 달성을 맞아 서서울농협 흥재지점을 방문해 도담도담통장 가입고객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도담도담 키우자는 뜻에서 개발한 이 상품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담도담통장

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남원 옷칠 제품 세일즈 마케팅

12월은 한해를 마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유통가에서는 농치기 않은 대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북경제진흥원과 전북대학교 남원옷칠 RIS 사업단은 불경기에 가뜩이나 힘든 남원 옷칠 가공업체와 신규 남원 옷칠 제품들의 홍보를 위해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행사를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 특집 행사로 '남원 옷칠 기업에게 희망을, 소비자에게 혜택'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며, 가격할인,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